

北京國際建築 심포지움에 參席하고 와서

北京紀行 (1)

A Tnrip to Red China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작년 11월 1일부터 5일간 中共北京에서 “生土建築”이란 주제로 國際建築 심포지움을 開催한다는 파리 U.I.A. 본부에서의 연락을 받고 建築家協會는 흥분과 긴장으로 문공부, 외무부, 安企부와 協議 끝에 입국할 수 있으면 입국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회원에게 참석희망 신청을 받은 바 80여명의 회원이 신청해 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은 못해도 중공에 대해서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고 우리와 육로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점과 歷史적으로나 政治, 文化, 學術面에서 우리와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나라라는 점에서 비록 政治的 理念이나 體制가 다르고 상호불인정 국가라는 점, 특히 建築面에서는 우리의 古建築의 원류일 수도 있는 中共 古建築에 대한 관심과 요즈음에 와서 대만과 우리와의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등, 가깝게는 중공민항기 사건이나 해군함정사건, 중공기의 월공귀순사건 등등의 일련의 중공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建築家들의 중공입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에서 또는 우리 정부의 대명한 결단에 힘입어 家協은 들떠 있었고 신청회원 중에서 10명을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했고 수차의 긴급이사회에는 겨우 연로층으로 하기로 하고 부득이 현역임원 약간명을 포함해서 10명의 명단을 확정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었으나 심포지움 등록금을 북경 중공은행에 발송하고 中共建築學會에 통보했다. 북경 중공은행에서 등록금을 받았다는 연락이 온 지 3일도 못되어 아무런 이유나 말도 없이 등록금 금액이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실망한 家協은 파리 U.I.A. 본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사람을 파리로 보내서 설득시키기도 했고 미국적인인을 북경으로 보내서 항의도 시켰고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별무 소식이고 진전없이 시간만 흘렀다. 별수없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각자에게 등록금 반환까지 했다. 흥분해서 기대했던 중공입국은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월말경에 느닷없이 U.I.A. 본부에서 속달된 한장의 TELEX는 우리를 또다시 흥분케 했다. 即 中共建築學會에 강력히 조치했고 중공은 駐동경중공대사관에서 입국 VISA를 줄 것이니 서둘러 입국하라고 되어있고 아울러 日本建築學會가 많은 협조 노력을 하고 있음도 알았다. 우리 외무부도 긴급히 여권을 발급했고 여행사사장이 우리 여권을 모두 가지고 동경에 가서 日本建築學會측과 협력해서 3일이나 걸려서 결국 VISA를 발급받아온 것이 10월 30일 저녁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기적적으로 10명의 建築家들이 중공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간의 애로나 시간상의 초조는 말할 것도 없고 용케도 10월 31일 오후 김포를 떠나 동경 경유로 11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긴장된 북경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이다. 본시 이번 여행은 家協으로서 9년간의 꾸준한 교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78년 Mexico U.I.A. 총회 때부터 1981년 Poland Walsaw 총회, 1984년 Cairo 총회 까지 중공대표들의 의사타진이나 초청해 줄 것을 교섭했던 것이고 그때마다 그들은 서슴치 않고 문제없다. 꼭 초청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정도였다. 그러던중 北京에서 국제건축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니 家協으로서 9년간의 긴장 안할 수 없었다. 하여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일행 10명은 북경공항에 안착한 것이다.

그러나 10월 31일 출국 11월 13일 귀국의 약 2주일간의 이번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일자의 허위도 없이 여행중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쓴 일기를 보며 써볼까 한다.

建築面에서는 우리의 古建築의 원류일 수도 있는 中共 古建築에 대한 관심과 요즈음에 와서 대만과 우리와의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등, 가깝게는 중공민항기 사건이나 해군함정사건, 중공기의 越空귀순사건 등등의 일련의 중공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건축학회회장과 (중앙에 책든사람)

10月 31日

쾌청의 가을 날씨였다. 약 1주간 정신없이 허둥대다 두섬두섬 준비하고 떠나는 여행이다. 김포공항에 전원이 오후 1시 집합해서 출국수속을 마쳤다. 모두가 흥분되어 있고 불안하기도 했다. 보내는 가족이나 협회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들이다. 우리는 지금 대명하게 적성 공산국가로 떠나는 것이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긴장된 마음으로 출국했다. 일행중 필자는 약간 다른 입장과 심정이었다. 그것은 꼭 40년전 학병으로 중국전선에서 각지를 돌아다녔고 북경 일본군사령부 공무과 설계반에도 3년간이나 근무했고 여타지역 근무까지 합쳐서 5년간이나 中國에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中國語도 통할 수 있었고 지리도 잘 알고있는 터이라 이번 여행의 통역이나 안내역을 맡아놓고 해야할 판이다. 그때는 일본 군복을 입고 남의 나라를 위해 남의 나라 땅에 전쟁을 한 것이다. 나의 나이 겨우 23세부터 28세까지의 청춘의 노란자위를 中國大陸에서 無意味, 無價値하게 소비한 셈이 되는데 이제와서 나의 청춘을 누가 보상해 줄리도 없으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혈기에 넘치고 무서운것 없던 그때 나는 北京에서 영똥한 것도 많이해서 말썽도 많이 부렸다. 당시 북경대학의 周作人 教授나 錢踏天 教授를 찾아가서 나의 심중을 털어놓기도 했고, 북경거리의 뒷골목이나 공공변소벽이나 가정집 대문등에 써있는 각종의 낙서를 모아 스크랩한 적도 있었고 중국인 청년들과도 사귀인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中國을 알았고 역사와 전통의 힘이 어떠한가를 알았고 中國人들의 인생觀, 自然觀, 宇宙觀 같은 것도 알아보았고 특히 儒敎와 道敎의 세계나 書畵나 風流에 대해서 제법 풍부한 셈이다.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다. 古跡이나 史蹟도 찾아 다녔다. 한여름 紫禁城 뒤 景山公園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고향생각도 해보았다. 그때 北京은 숲의 都城이라고 까지 불렀다. 樹木이 울창해서 시내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었다. 길가에서 서민들의 음식도 자주 사먹었다. 이런 일들이 다 40년전 일이다. 이제 중노에서 백발이 성성해서 다시 北京엘 갈 수 있다니 꿈만 같고 놀라움기만 하다. 하기가야 家協에서 인원 선정할 때도 우선 연로자를 먼저 보내자고 한것도 中國과 우리나라는 반드시 국교가 될 것이고 왕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제에서 연로층이 가게된 것인 줄 안다.

JAL機는 오후 3시30분 이륙했고 大阪에 도착은 오후 5시20분 이었다. 공항에는 일본建築學會 임원이요 明治大學敎授인 浦良一 敎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浦 敎授에게서 비로소 이번 여행에 일본 建築學會가 왜 발벗고 나섰는지 알았다. 즉 금만 北京 심포지움은 그동안 日本 建築家들이 수차 中共에 가서 中共 각지의 生土建築을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로 했고 또 중공으로 하여금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게끔 권유했다는 점과 주최는 中共建築學會이지만 협찬은 日本 建築學會이고 日·中友好協會도 찬조했다는 점등을 알았다. 현재 日本人들은 일반인들도 중공 관광여행이 대유행이고 더우기 신혼부부들의 여행은 중공으로 택하고 S-silk Road 여행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터이다. 浦 敎授도 수차 中共을 방문했고 中共建築學會 임원들과도 친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中共의 사정과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 등은 친절히 말해 주었다.

공항 부근의 日本航空 호텔에서 일박 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리 예약되어 있었기에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大阪의 쾌청의 밤 하늘을 보며 내일아침 10시엔 北京으로 직행한다.

한여름 紫禁城 뒤 景山公園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고향생각도 해 보았다. 그때 北京은 숲의 都城이라고 까지 불렀다. 樹木이 울창해서 시내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었다.

11月 1日

구름 한점 없는 좋은 날씨였다. 일식 조반도 별미였다. JAL 783機가 정각 10시에 이륙했다. 일행은 벌써부터 카메라에 필름을 장전하고 서성거렸다. 富士山 정상엔 백설이 덮혀 있었다. 機内の 확성기는 日語, 英語, 中國語로 하고 있었다. 이윽고 上海 上空을 통과한다고 방송이 있었다. 모두 창가에 가서 상해 시가를 촬영했다. 상해! 40년전 해방직전 일본군을 탈출해서 한국독립군 장교로서 복원귀국대란 완장을 차고 歸國船을 탔던 곳 바로 그곳 上空을 날고 있는 것이다. “가덴부릿지” “四馬路(쓰마로우)” 虹口公園, 부두 등이 눈에 선한 상해이다. 이날 중공대륙도 쾌청의 가을날씨였다. 너무도 광활한 대지 양자강의 지류인 황포강이 상해 중심을 흐르고 있다. 수구한 長江, 수많은 榮華盛衰와 풍운을 지켜본 長江은 말없이 옛처럼 흐르고 있다. 곧이어 태산이 보이고 기억도 새로운 석가장 남경, 개봉 제남을 알아볼 수 있었다. JAL機를 계속해서 일로 중국 대륙을 북상하고 있다. 山東半島가 보이고 天津市가 보인다. 이제 北京에 다 왔구나 했다. 멀리 華北平野가 나타났고 곧이어 정오 55분에 北京市 華北쪽 교외 북경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오랫동안 밟는 중국 땅이다. 감개무량할 뿐이다. 일행은 모두 긴장된 표정들이었다.

북경공항에서 부터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알았다. 즉 여객은 10명 단위의 조로 되어있는 단체이면 아주 쉽게 입국수속이 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업무는 中國國際旅行社 직원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일행 10명은 단체임으로 쉽게 끝났고 여행사에서 벌써 소형버스로 출영 나와 있었고 建築學會 職員도 나와 있었다.

대개의 共產國家에서는 여행사가 국가기관이고 학제회의나 외국인 출입은 거의 여행사가 취급한다. 즉 매일 그날의 모든 정보를 외무부나 당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일종의 정보원을 겸한것이 모든 여행사 직원들이다. 이런 일은 전년 Poland Walsaw에서도 이미 체험한 바가 있어 그들에 대해 언행을 신경써야 한다.

여행사직원, 建築學會 職員이 성큼성큼 우리 일행의 짐을 소형버스에 싣고 우리도 다 탔다. 공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다. 시내로 행하는 대로는 양측이 포푸라 가로수가 아주 수렁이 어린것을 보면 이 공항의 건설도 근자에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로 양측은 농토이고 농가도 보인다. 이 공항 대로에 牛馬車가 무수히 다닌다는 것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 트럭이나 차들은 아주 적어서 교통체증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 가끔 교통신호도 보이나 각양각색이다. 통일된 것이 아니다. 교통순경은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안내 청년에게(그는 日語와 英語 하나 아주 서툴렀다) 사진 촬영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아-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마음대로 찍으라”는 대답이었다. 명랑하고 자신만만한 태도이고 무언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이다. 나는 운전사 옆자리에 가서 앉고 어설픈 중국어로 그와 이야기해 보았다. 그는 우리를 日本人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조선인이냐고 한다. 아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했더니 놀라면서 “아-南韓國”하고 아는체를 한다. 大韓民國이다. 北朝鮮 南韓國이 아니냐 한다. 우습기만 했다. 韓國인이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하는 표정이다. 모든 일이 놀랍기만 하고 이상하기만 했다.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차도 사람도 많아진다. 공항을 떠나 약 40분 후에 우리는 지정된 友誼賓館 (Friend Ship Hotell)에 도착했다.

호텔에는 벌써 建築學會 人事들도 와있고 여행사 담당자들도 나와있어 우리들의 방 배려도 다 되어 있었다. 5층에 연속된 5개 방이 배당되어 있었다. 한방에 2명씩인데 1숙박에 식사포함 60\$이면 비싼 편이다. 욕실, 변소등 완전하며 서울의 중류급 호텔 정도는 되었다. 로비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아-선배님 어찌된 일입니까. 용케 오셨네요」 하면서 日本 名古屋工大 宮野 秋彦 教授가 달려와서 껴안는다. 나도 반가웠다. 宮野 教授는 동경에서의 나의 17년 후배가 되고 전년 우리 建築學會 초청으로 서울에 와서 “썬에너지”에 대한 강연회도 가진 바 있는 친구이다. 알고보니 이 친구가 日·中友好協會 會長職에 있고 中共엔 벌써 네차례 다녀갔고 특히 山西省 지방의 생토건축 현장도 수개월간 조사한 바 있다고 했고 Silk Road 여행도 했다고 들었다. “선배님 이번 북경에 마누라와 장남도 동행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장남을 불러 나에게 인사 시킨다. 나는 속으로 이친구 아주 중공통이 되려나 보다 했다. 차남은 임학을 하고 있어 수년전 부터 나의 장남과 서독에서 임학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끼리는 편지 교신도 자주하고 있었는데 결국 동경대학에서 임학을 하기로 했으나 나의 장남은 현재 서독에 유학중 이어서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고 그의 형이 대신 사과까지 한다. 그들은 여전히 교신이 있고 친히 지내는 사이이다.



심포지움장 정문에서

나의 나이 겨우 23세부터 28세
까지의 청춘의 노란자위를 中國
大陸에서 無意味, 無價値하게
소비한 셈이 되는데 이제와서
나의 청춘을 누가 보상해 줄리도
없으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개의 共産國家에서는 여행사가 국가기관이나 학술회의나 외국인 출입은 거의 여행사가 취급한다. 즉 매일 그날의 모든 정보를 의무부나 당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일종의 정보원을 겸한것이 모든 여행사 직원들이다.

이 호텔에는 日本 대표가 거의 다 유숙하고 있어 青木志郎, 八木幸二, 石川清, 富樫穎 等 일본에서도 현역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이며 구면이어서 웃어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한국에서 용케도 입국했다면서 대단하십니다 하며 놀라고 있었다.

각자 배당된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한숨을 쉬며 “아-오긴 왔구나” 했다. 저녁때 모두들 로비 커피숍에 내려갔으나 나는 목욕을 하고 내의바람으로 있는데 풍채좋은 중국인과 묘령의 여인이 내 방을 노크한다. 누구냐고 했더니 中共建築學會 會長이라고 한다. 나는 긴급히 옷을 주워입고 대했다. “먼데서 오셨기에 인사차 왔으나 모두 안계셔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아니 오다-들 커피숍에 내려가 있다고 했더니 아-그러냐고 웃는다. 동행의 여인은 24세 정도의 미인인데 영어통역을 했다. 그는 차 한잔 마시고 곧 내일 회의장에서 만나자고 하고 돌아갔다. 그때가 밤 10시경 이었다.

北京의 첫날밤이다. 무언가 꿈속에 있는것만 같고 잠이 안온다. 40년전의 北京을 회상도 해 보고 그때의 中國 청년친구들은 아직도 다들 北京에 살고 있는지, 자꾸만 옛 생각들이 되살아난다. 나는 지금 확실히 北京에 와 있는 것이 다라고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지않는 잠을 청했다.

11月 2日

상쾌한 아침이었다. 우리는 北京에서 하룻밤을 지낸 셈이다. 오전 9시 30분 부터 호텔 구내 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움이 시작된다. 원래 이 호텔은 소련인들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구내는 옛날 東風師範大學 자리라 당당시 건물도 남아 있고 대회의실도 東風師範時의 중강당을 내부만 개조한 계단식인데 현재는 北京 과학회당이라고 정문앞에 큰 桐校 看板이 붙어있고 題字는 鄧小平 現書記長의 글씨인데 1984년이라 되어 있으나 내부수리해서 용도 변경한 것도 얼마 안되는 셈이다. 개회식이 시작되기 전 각국 대표단이 다 입장해서 착석했는데 우리 일행은 네째열 앞줄에 북한 대표 네명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우리 일행중 몇사람이 앞에 나가 그들의 정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당혹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다 보며 우리들에게 “사진은 왜 찍습니까? 보고할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그 다음부터 3일후 人民大會議場에서의 초대만찬석상에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뿐 말은 안하고 지냈다.

開會式詞에서부터 영어통역이 옆에 서서 통역을 했다. 이 회의장은 아직 同時通譯裝置도 안되어 있고 그런 통역능력도 없는것 같았다. 그것은 어제 내 방에 왔던 建築學會長과 동행했던 여자 통역도 후에 안 일이지만 북경제팔호중학교 영어교사이었음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번 심포지움의 통역에는 北京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소집한 것 같았다. 개회식 순서는 간단했으나 祝辭(建設部長官) 日本建築學會代表 等으로 통역 때문에 두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2시에서야 겨우 5개분위가 결정됐고 각 참석자들은 자기가 관심있는 분과에 참석신청을 했다. 우리 일행은 꼭 10명이므로 2명씩 3조를 짜서 각 분과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고 오후부터 각기 該當 分科 討議에 참석키로 하고 午餐에 들어갔다.

이제부터 11월 5일까지의 각 분과의 토론이나 주제논문 등 전부 유인물 되어 있어서 전부 가지고 귀국했고 家協이 이것을 정리해서 후일 기회를 보아 우리 건축계에 제공할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기행문에는 언급않기로 한다. 그 내용의 개요는 흙의 건축은 건축자체의 시원적인 것이고 현재 세계의 많은 곳에 이 흙의 건축이 있고,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무리 건축자체의 발전이 다양하다 해도 흙은 건축자체의 주종이고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집을 짓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건축의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각처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흙건축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점은 더욱 연구해야 할 점은 배수, 환기, 채광, 위생처리 등은 각분야별로 조사연구한 것이 발표되고 제안되어 이것을 토론하고 최종일 종합보고하고 폐회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흙건축에 대한 연구나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建築學會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추려서 가지고 가서 제출했다.

우린 많은 선물을 서울서 가지고 갔는데 그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86, '88의 올림픽 포스터, 아시안게임 포스터, 올림픽 배지 등 이런 선물은 대개 中國建築學會 요인들이나 中共 각지서 온 대표들에 나누어 주었다. 몹시들 좋아하면서 서로 자기도 달라고 야단들 이었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올림픽 배지였다. 호텔 직원이나 여행사 직원들에게 컵이나 포스터, 스티커 등을 나누어 주면 호텔 차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벌써 자유의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호텔방에서

